

뉴욕공립도서관 한국 유물 공개 숨은 주역 로버트 텔리 코리아아트소사이어티 회장

# “우연히 본 도자기가 한국 예술 세계로 날 이끌었죠”

## 한국 예술광들 모아 2008년 회원제 단체 설립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서 조선 검 발견 ‘유명세’ 외규장각 의궤 귀환 때 본 한국인 눈물 못잊어

맨해튼의 뉴욕공립도서관 본관이 600년된 한국 유물을 공개 하기까지 숨은 공신이 있다.

〈본지 7월 15일자 A-3면〉  
바로 로버트 텔리(54·사진) 코리아아트소사이어티(KAS) 회장이다. KAS는 텔리가 2008년 설립한 단체로 국적과 직업을 불문하고 순수하게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 같이 관람을 다니고 연구하는 무료 회원제 단체다. 이미

한인 사회 문화계에서 텔리는 잘 알려진 ‘한국 예술광’. 2012년에는 워싱턴DC 스미스소니언 자연사박물관 수장고를 방문해 일본도로 둔갑한 조선 검을 찾아내기도 하며 유명세를 탔다. 미국 내에서 잠자고 있는 한국 유물들을 찾는 데서 보람과 희열을 느낀다는 그가 이번에도 큰일을 해냈다.

텔리는 “이 도서관이 잘 알려진 일본 컬렉션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한국 유물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도서관 직원에게 물어봤지만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했고 결국 재패니스트아트소사이어티 회원들과 함께 방문했을 때 만난 큐레이터에게 한국 컬렉션이 있느냐고 묻게 된 것이 계기가 됐다”며 “그후 도서관의 판화·인쇄물·사진 자료 등을 리서치하기 시작했고 바로 이번에 선보인 600년 이상된 한국 작품들을 찾아 큐레이터에게 공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제 한국 유물들이 대중들에게 선을 보이며 수십 년 만에 수장고 밖의 빛을 보게 됐지만 그는 아쉬

움이 남는다고 했다. 더 많은 이들이 미국 내 한국 유물들에 관심을 가지길 바라고 때문이다. 그는 “2011년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프랑스가 1866년부터 소장해 오다 한국에 반환한 외규장각 의궤를 봤던 것을 기억한다”며 “그때 몇몇 한국인들이 145년만에 귀환한 의궤를 보며 눈물을 닦는 것을 봤는데 우리 회원들이 미국 땅에서 숨겨져 있던 한국 유물들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이 그런 것일 것”이라고 말했다.

텔리는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 미국 내 숨겨진 한국 유물들을 발굴하는 일에 단체든 개인이든 많은 이들이 동참했으면 한다”며 “내



가 우연한 계기로 한국 도자기를 보고 한국 예술에 빠진 것처럼 이 땅에서 빛을 발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황주영 기자 hwang.jooyoung@koreadaily.com



정명희 치과 확장 개원 예배 7월부터 맨해튼(880 5애비뉴)과 플라싱(142-10B 루스벨트애비뉴)에 확장 개업한 정명희임플란트성형전문치과의 개원 예배가 19일 플라싱 오피스에서 열렸다. 정명희 원장(앞줄 가운데)과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정명희 치과 제공]

## 뉴저지한국학교 합창단 연방의원들 앞서 공연

22일 풀뿌리컨퍼런스 만찬장 애국가·미국 국가, 아리랑 불러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참석

8세에서 13세까지의 한인 소년·소녀들로 구성된 뉴저지한국학교 합창단이 연방의원들 앞에서 공연을 펼친다.

합창단은 22일 워싱턴DC의 하얏트 리전시 호텔에서 열리는 풀뿌리 컨퍼런스 만찬 행사 무대에 올라 연방의원 20여 명 앞에서 애국가 및 미국 국가와 함께 아리랑 등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담은 노래를 부른다.

21일에서 23일까지 이어지는 풀뿌리 컨퍼런스는 한인들의 결집된 정치력을 미 정치권의 심장인 의회에서 펼쳐는 대규모 행사다. 특히 22일 만찬은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등 정치권을 주름잡는 의원들이 다수 참석해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이날 어린 한인들의 합창은 미국에서 살고



지난 17일 뉴저지주 티넥의 매리엇호텔에서 열린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 회식에서 뉴저지한국학교 합창단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뉴저지한국학교 제공]

있는 ‘코리아아메리칸’의 문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컨퍼런스 주최 측은 소개했다.

합창단은 ‘노래를 통한 정체성 교육’과 ‘코리아아메리칸 문화를 미국 및 한인사회에 알린다’는 취지로 지난 5월 창단됐다. 단원 28명 가운데 절반은 한국학교 소속 학생들이며 나머지 절반은 외부에서 지원한 어린이들이다.

합창단의 강혜영 지휘자는 “노래를 통해 한국어의 정확한 발음은 물론, 한국 문화가 담긴 정서를 배울 수 있다”며 “이번 공연에는 경기아리랑과 홀로아리랑을 합쳐 편곡한 노래를 부를 예정이다. 아이들이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만큼 좋은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0@koreadaily.com

## 뉴욕한국문화원 파트타임 채용 한국어·영어 이중언어 구사자

뉴욕한국문화원(460 파크애비뉴 6층)에서 파트타임 리셉션리스트를 채용한다.

자격요건은 미국 내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국어와 영어 이중언어 구사자여야 하며 6개월 이상 근무가 가능해야 한다. 리셉션 또는 사무보조 업무 경험자는 우대한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나 조

정 가능하며, 급여는 면접 시 안내한다. 근무 시작은 8월.

제출 서류는 이력서와 한글·영문 자기소개서이며, 이메일(info@koreanculture.org)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이주사랑 기자

**Pinnacle Capital 피나클 캐피탈**  
SINCE 2000  
**빠르고 정확한 Service**

- 대형상용건물 융자 (As low as 3.125%), 재융자, Cash out (MAXIMUM LTV 최저이자) 개인 인컴 아닌 건물 인컴 기준으로 융자
- SBA Loan (창업융자, 가게구입, 운영자금 융자)
- 1-4 Family 주택 모기지
- 콘도, 코오파 모기지
- 투자용 주택 - NO 인컴 융자 가능
- Refinance
- Home Equity Line, LTV 90% 가능 (미국 전지역 가능)
- Business 구입융자
- 외국인 모기지 (소설 없어도 가능)
- Business Line of Credit (빠른 결과)
- Personal 융자 (소액의 융자를 신용으로만 좋은 고정 이자와 함께 제공)
- 크레딧 교정

당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금융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전화상담 환영

New Jersey  
530 Main Street Suite 204, Fort Lee, NJ 07024  
Tel: 201.242.8787 Fax: 201.242.9404

New York  
414 West 45th St. Suite 3, New York, NY 10036  
Tel: 646.856.7597

**KABA** Korean American Business Association  
**미주한인 전문인 모임**  
KABA 모임은 미국 현지 한인 전문인들이 전문 지식을 활용, 한인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YK Nah Law Firm, P.C. <b>나영진 변호사</b> 판사 / 이민 718.886.5005 201.577.4563	 Kim, Lee & Associates LLC <b>조연리 회계사</b> 세무, 회계 / 재무제표 / 창업 컨설팅 201-292-3285 201-947-1040	 Law Office of KANG, LLC <b>강나경 변호사</b> 상법 / 이민 201.203.0472	 하나통증병원 <b>김창선 대표</b> 척추신경전문 201.569.0077 www.hanahealthcare.com	 HSK Financial LLC <b>김한석 재정설계사</b> 투자, 은퇴, 생명보험 201.388.5590 www.HSKFinancial.com	 I LOVE LASH <b>뉴저지 속눈썹 연장 전문샵</b> 201.461.4050 www.ilovelashusa.com
 시니어전문보험 우&제 <b>제영신 보험설계사</b>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888.998.8012 young@wnjinsurance.com	 Ohmycruise <b>서대진 Cruise &amp; Resort Expert</b> 201.654.3399 www.ohmycruise.com	 Prestige Lexus <b>구본훈 Certified Sales Consultant</b> 201.760.5504 201.674.8152 (C)	 Columbia Auto Body <b>황창선 대표</b> 자동차 정비 바디 페인트 201.943.1365 201.562.8199 (C)	 EMI 교육센터 <b>맹원규 대표</b> SAT, 방과후 학교 201.944.9320	 xinno <b>Ryan Chung</b> Online Marketing, Shopping Mall 201.489.7373 www.xinno.com

“웹사이트에 오셔서 무료상담 받으세요” [www.kabaus.com](http://www.kabaus.com)